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이 한자리에

-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청장 박경희)은 충남권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하여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이하 ‘기후협의체’) 정기회의를 10월 11일(수) 대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기후협의체’는 대전지방기상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전지방기상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의 기후변화 과학 또는 정책 전문가 그리고 대전·세종·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정책위원 10명으로 5월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추진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등 지역민의 기후변화 이해도 향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 박경희 청장은 “기후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에 맞는 실효성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지역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공동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 정기회의 사진

담당 부서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유민수 (042-363-3540)
		담당자	주무관	이성은 (042-363-3547)

